

독도 도발에 싸늘해진 韓日

日, 독도영유권 해설서 포함여부 '검토중' 韓, 임정 대처키로... 韓·日 관계 다시 요동



유명환(왼쪽) 외교통상부 장관이 19일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의 항의입장을 전달하기에 앞서 자리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학교 교과서의 신화 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명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훈풍이 불던 한·일관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이번 일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등 과거 한일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반복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해 온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의 '도발'에 정부도 강경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오전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할 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우리 정부의 항의입장을 표명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유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언론 보도의 진상을 확인하고 사실일 경우 엄중히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일본 측에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려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했는데 일본이 그렇게 나간다면(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명분이 약해지니 우리의 우려를 사전에 전달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치무라 노부타카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일관된 일본 정부의 주장으로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새 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새롭게 명기키로 한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

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마치무라 장관은 그러나 "곧 발표될 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에 대해 어떻게 기술할지는 현 시점에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과제를 다뤄나가기로 한 기본 자세는 지난날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했으며, 그 자세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 문제를 정적적으로 크게 확대시킬 생각은 없다"고 말해 독도 문제가 양국간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는 것은 경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거에 엄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우리 정부의 방침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자세는 화되 이번 일이 참여정부 후반기와 같이 한일관계가 꼬이는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많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 강 대표 정례회동 뭉칠 논의했다

'국정쇄신안' 꺼내지도 못해

강대표 쇄신안 사전 누설 사과... '복당' 당 해법 사실상 수용

강제섭 한나라당 대표가 1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한나라당의 국정쇄신안 건의를 하지 못했다.

조운선 대변인은 이날 정례회동 뒤 브리핑에서 "(강제섭 대표가 국정쇄신안)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려려 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는 당에서 마련중이던 쇄신안이 언론에 미리 알려진 데 대해 이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데다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국정쇄신안이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쇄신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주요 내용이 사전에 언론에 유출된데다 인적 쇄신에 대해

청와대와 당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인적쇄신 요구에 부정적 입장인 반면 당에서는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대세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당내 일각에서는 이날 회동에서 민심수습책 건의가 불발된 데 따른 반발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당이 언제까지 청와대의 눈치만 봐야 하는지 하는 것이다.

특히, 이날 '실기'로 동력을 상실한 당 주도의 국정쇄신 추진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장 당 내외에서는 이날 정례회동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회동 결과에 대해 "국정 전반이 상당히 위기적이고 난국인데, 국민적 기대나 당 내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회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또 다른 관심사안이었던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당의 해법을 사실상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강 대표로부터 '18대 원구성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당의 윤리기준과 정체성에 맞는 인사들의 복당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복당 문제는 당의 문제인 만큼 강 대표가 중심이 돼 잘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호주·뉴질랜드를 방문중인 박 전 대표가 역시 친박 인사들의 복당 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와 관련, 강 대표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중심의 각 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 추진 등의 방침을 밝혀, 향후 당정협의 강화 방향이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李 대통령 비공개 일정 유출 '비상'

"근본대책 세워라" ... 靑 누설자 조사 착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개인명단 등 비공개 일정 유출과 관련해 근본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최근 잇단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면담 유출 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고, 관련자가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고강도 대응'은 최근 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특

대 사실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데다 면담 내용도 확대 재생산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주말 일부 참모들에게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고 싶는데 이렇게 쉽게 외부로 알려져서야 누구를 부를 수 있겠느냐"면서 "이런 식이라면 처리 안 하느니 못하다"고 말했다고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방중 수행 경제인 38명 확정

래 전경련 회장, 이회복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 경제단체장이 지난 마·일 순방에 이어 이번 방중에도 수행한다.

또 기업인 가운데서는 이진희 전

나 회장, 박용만 두산인프라코어 회장, 윤봉태 GS칼텍스 사장, 김종갑 하이닉스 사장 등이 주요 대중(對中) 경험기업 대표 자격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이승기 광주상의 회장,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과 배희숙 여성벤처협회장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을 국민 방문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인 수행단이 19일 최종 확정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달말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경제단체장과 재계 총수, 중소기업 대표 등 모두 38명의 경제인이 수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손준석 대한상의 회장, 조석

2009년 공무원시험 상한 응시연령제한 폐지로 공무원 시험 열풍! 귀하를 광주 "한빛고시학원"에서 합격을 책임지겠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 [지방직] 합격! 최강퍼펙트강좌

www.hanbitgosi.co.kr
들어오시면 전국최고의 시설과 최다합격자 최강의 강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같이론반 2개월 완성	같이론반 2개월 완성(이론+문제)	같이론반 2개월 완성	같이론 반수반 2개월 완성	서울시문제풀이 4주완성	법원점찍 2개월 완성	소방·기술직 2개월 완성 교공·보안·사원까지	농업직 농업연구사·농민지도사 영농·농·특별행정 특강
-----------------------	------------------------------	-----------------------	--------------------------	------------------------	-----------------------	---------------------------------------	---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www.hanbitgosi.co.kr
예비공무원 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전태후문 북구청앞 234-0234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새롭고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증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대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초 주야 합격 을 원하신다면 편 수강료, 집가깝다는 이유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증개사 전문학원 새출신을 선택하십시오. 교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발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증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기위 ● 선배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기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바로옆 도영빌딩 북구점 ☎ 529-8111 계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대안빌딩 옆 정승빌딩 6층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7급 공무원시험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교정직	보통직	소방직	전차직	특수직	특수직	기술직	보통직
-----	-----	-----	-----	-----	-----	-----	-----	-----	-----	-----	-----	-----	-----	-----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월간강좌) ※

금년 중·하반기 시험 **개강** 합격수강 회원모집

● 전반기: 제1회 공·경 9월27일 209명 ● 하반기: 제2회 636, 전북119명 공채 ● 서울: 교정(8명) 7.20, 1,188명, 기타 8.17, 666명

5월15일(주·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 6개월 (중)회원 80만원 ● 1년 (경)회원 120만원 ● 합격시까지 170만원

= 값(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i.co.kr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 합격을 전국 1위 =

공인증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 현대적 학습시설
-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 과학적 평가시스템
-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